현대일렉트릭, 국내최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주관사로 선정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허원범 현대일렉트릭 신사업부문 상무(오른쪽부터), 박상훈 전무, 조병걸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장, 조재희 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LS그룹, 안성시 취약계층에 '핫 하트' 나눔 행사

LS는 15일 안성 시내 취약계층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핫 하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룹 연수원인 미래원이 소재한 안성시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왼쪽부터)국선희 안성시 희망복지팀장, 박찬수 서안성푸드뱅크 센터장, 박영기 안성시 복지정책과장, 신헌채 LS미래원 교육지원팀장 . /LS그룹

NH농협은행 IT부문 '라자로의 날' 감사패 수상

NH농협은행 IT부문은 지난 13일 성라자로 마을 설립 71주년을 기념하는 '제51회 라자로의 날' 행사에서 20년 간 장기 후원 등에 대한 노고로 감사패를 수령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구 IT노조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박수기 IT기획부장(왼쪽 세번째)이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왼쪽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하나금융, 가을맞이 의류 기부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의류 기부 캠페인 '폴인(Fall in) 옷장'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Fall in 옷장은 가을맞이 옷장정리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올해 세번째 의류기부 캠페인이다. /하나금융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최남호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장 정진호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 유재권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청사관리소장 윤병준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장 홍신애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 고응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장 김경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2과장 원종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정보시스템2과장 김영진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입영동원국장 정홍식 ◇과장급 승진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최은숙

부음

▲진소방씨 별세,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씨 모친상, 유귀숙씨 시모상 = 15일 오전 8시,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발인 17일 오전 8시. 062-527-1000
▲이경덕 씨 별세, 민충기(㈜ 경원여객·㈜시흥교통·㈜소신홀딩스 대표이사)씨 장인상=14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예식장 17호, 발인 18일 오전 6시. 02-3410-6917

非임금 자영업자들의 처우개선을

이상헌의 창업 칼럼

그간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상비의 절감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경상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와 임대료이며, 인건비는 사대보험 등 변동성 금액까지 부담하는 고정비의 개념이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방법을 선택해왔다.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81.7%, 30% 이상은 14.7%, 10% 이상 3.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000명으로, 6개월 동안 약 9만1000명이 감소하여 6.3%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000명으로 6개월 동안 4만7000명이 증가, 1.1%가 늘어났다.

매출과수익성의하락은소상공인들의 고용환경을 어렵게 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를 양산하였다.

비임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주로 가리킨다. 소상공인 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없이 가족과 같은 혈연관계나 지인관계에 의한 자발적 노동자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20년 비임금 직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보면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36.4%, 50대 27.3%, 40대 2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적 구성비를 분석하면 2019년 대비 고 연령층 종사자들의 비임금 근로가 증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모 등 혈연관계로부터 유노동 무임금적 고용관계를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런 특수관계로 지속된 운영은 한계가 있다.

창업은 서비스업이다. 업종과 아이템에 관계없이 소비자와의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사고파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안정된 서비스가 매출을 담보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이제는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의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혈연과 지연적 관계를 통해 비급여적 종사자로 충당함으로써 고용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고용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 노동시장의 건전성도 하락하는 결과도 양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 급여 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현대차 정몽구재단, 클래식 음악 인재들의 실력 자랑

2021 온드림 앙상블 콘서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진행한 '2021 온드림앙상블 콘서트'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클래식계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2021 온드림앙상블 콘서트'를 개최했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2014년 창단한 '온드림 앙상블'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클래식 음악 전공 장학생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지도, 전공별 앙상블 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온드림 앙상블은 지난 9월에도 '온드림 앙상블 실내악 시리즈'를 사흘에 걸쳐 선보였다.

이번 온드림앙상블에서는 피아노 교본으로 익숙한 체르니의 실내악 작품과 같은 숨은 명곡은 물론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 실내악으로 편곡된 명곡들이 펼쳐졌다.

단원들은 메조 소프라노 윤현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트럼페터 성재창(서울대학교 교수), 플루티스트 이예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첼리스트 주연선(중앙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이진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지도 교수진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앙상블의 호흡을 익혔다. 공연은 다음달 16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문화예술 인재는 누적 2199명으로 지원금액은 약 88억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 전국체전서 '28개 메달'

한화큐셀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단이 3년여 만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15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이 지난달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화큐셀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22명의 선수들에게 11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일부 선수에게는 침구류 등 생필품도 제공했다.

한화큐셀장애인스포츠단은 역도 종목에서만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고 사격에서 은메달 7개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펼쳤다.

한화큐셀지적장애인축구선수들은 금메달을 획득하며 창단 이래 최초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조정 선수들은 동메달을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임원배 한화큐셀 전무가 지적장애인 축구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한화큐셀 박재원 선수(왼쪽)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5대 핵심가치로 100년 기업 도약"

코리아나화장품 창립 33주년

코리아나화장품이 지난 12일 광교 사옥에서 유상옥 회장과 유학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그동안 코리아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장기근속자 시상식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학수 대표는 온라인 기념사를 통해 "코리아나 화장품이 33년동안 발전하고,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애사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유 대표는 "코리아나 화장품이 '앞으로 100년'으로 나가기 위해선 '5대 핵심가치(Technology, Innovation, Marketing, Consumer, Overseas)'를 변하지 않는 지향점으로 삼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코리아나 화장품 광교 사옥에서 열린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유상옥 회장(왼쪽 두번째)과 유학수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가 장기근속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나 화장품

또한 "외부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내부적으로는 히트상품의 개발과 육성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협력하면 코리아나의 재도약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